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21년 5월 12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47천 km <sup>2</sup> 	<b>인구</b> 33.9백만명 (2020)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지속, 서방과의 협력 확대 
<b>GDP</b> 577.1억 달러 (2020) 	<b>1인당 GDP</b> 1,702달러 (2020) 	<b>통화단위</b> Som 	<b>환율(U\$기준)</b> 10,054 (2020) 

- 우즈베키스탄은 금, 면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이 자원들과의 연관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을 위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여 사회, 보건의료, 산업, 인프라 등에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OECD, IMF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17년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외환자유화 등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EAEU 옵저버 가입과 WTO 가입 추진 등 대외협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2,117,451	2,338,438	1,704,234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일반기계
수입	21,920	19,708	18,161	면사, 면직물, 기호식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413건, 7억 7,379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6.1	4.5	5.4	5.8	1.6
소비자물가상승률	8.8	13.9	17.5	14.5	12.9
재정수지/GDP	0.8	1.3	1.7	-0.3	-3.3

자료: IMF, EIU

###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 하락, 2021~22년 다시 반등 전망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5년(-0.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6%)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지출 증가(전년대비 3.6%)는 플러스 성장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19년 대비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소매판매 및 화물, 여객 운송량도 크게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이후 농어업 및 건설업의 성장이 플러스 경제성장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표 1]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코로나19 영향

단위: %, 억 달러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5.8	1.6
소비자물가상승률	14.5	12.9
산업생산 증가율	제조업	8.9
	서비스	5.2
	농·어업	2.5
	건설업	22.9
소매판매증가율	9.1	3.2
운송량 증가율	화물(중량 기준)	1.8
	여객 수	3.6
		-4.8
		-16.7

자료: IMF,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IU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1.6% 성장은 세계 평균성장률(-4.4%)이나 신흥국 평균 성장률(-3.5%)에 비해 높으며, IMF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IMF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국내경제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단위: %

국가	2019년	2020년 <sup>o</sup>	2021년 <sup>f</sup>
우즈베키스탄	5.8	1.6	5.0
카자흐스탄	4.5	-2.6	3.2
키르기즈	4.5	-8.0	6.0
타지키스탄	7.5	4.5	5.0
투르크메니스탄	6.3	0.8	4.6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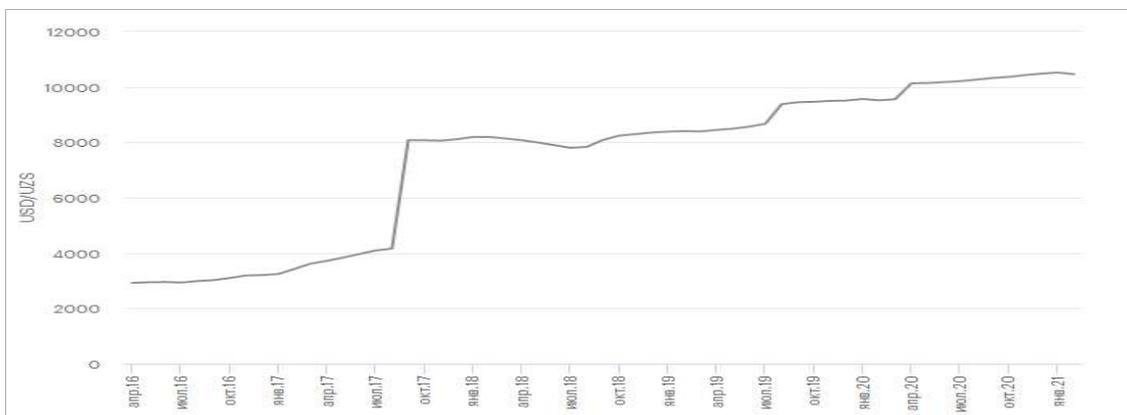
- 대외 경제환경의 개선에 따라 2021년 5.0%, 2022년 5.3%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반등(IMF는 2021년 세계 평균 6%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봉쇄조치에 따른 소비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다소 하락

- 숨화 환율의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sup>1)</sup>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 봉쇄조치에 따른 소비 둔화, 환율 상승폭 둔화(2019년 13.91%에서 2020년 10.1%로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14.5%)에 비해 12.9%로 다소 하락하였음.

[그림 1] 숨화 환율 변동(2016.4~2021.1)

단위: 숨/달러



자료: IMF

1)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8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정부 지분 50% 이상 기업의 분기당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통제함. 수입제한 대상에는 외국 정부 및 기구의 지원 기금을 통한 수입품과 국방 및 안보 등의 필요에 의한 수입품은 제외됨.

## 국내경제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에 대응하여 2018년 9월 이후 16%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상승세 둔화에 따라 2020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 (2020년 4월 15%로, 2020년 9월 14%로 인하).

[그림 2] 우즈베키스탄의 기준금리 변동추이(2013.1 ~ 2020.9)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구성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17.7%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데 비해 비식료품과 서비스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 2021년에도 숨화 환율의 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2023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5%로 하락 목표)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의 12.9%에서 9.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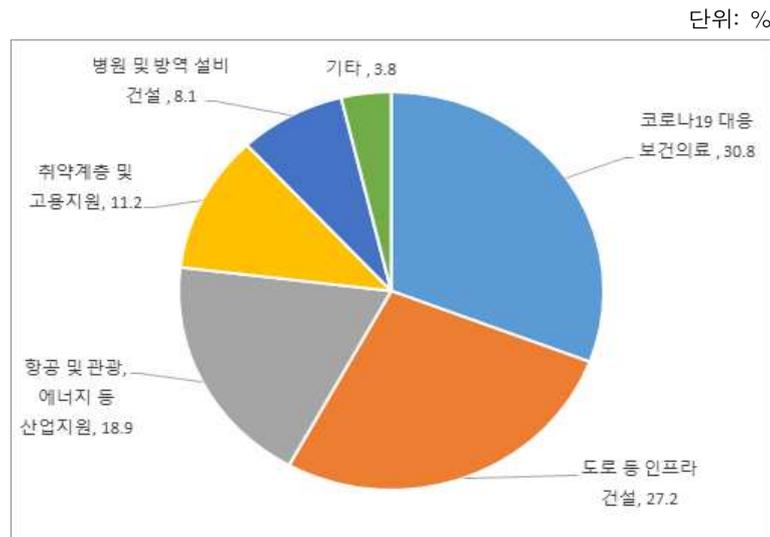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 사회 부문, 보건·의료 부문 등에 대한 정부 지출 증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2019년의 -0.3%에서 2020년에는 -3.3%로 상승하였음.
- 2021~22년에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2021년 -3.5%, 2022년 -2.8% 전망).

## 국내경제

### 2020년의 코로나19 대응펀드 조성과 2021년 지원 현황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부문 지원과 취약업종, 중소기업,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GDP의 1.5% 규모인 위기대응펀드 10조 숨(9.95억 달러)을 조성함.
- 이 가운데 9.87조 숨(9.82억 달러)은 세계은행, ADB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자금(1,300만 달러)은 정부 예산으로 조성됨.
- 2020년 9월 기준으로 초기 조성기금의 95%가 지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1월 정부 예산과 국제금융기구가 각각 50%씩 지원하여 3.4조 숨(3.38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조성됨.
- 대응펀드 자금은 2020년 말까지 보건·의료 부문과 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과 취약한 자영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음.
- 2020년 11월 말 기준 전체 대응예산 13.4조숨(13.3억 달러)의 88%(11.8조 숨(10억 달러))가 지출되었음. 지출 항목별로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부문(의료설비·치료제 구입)에 30.8%, 도로·상수도·학교·스포츠시설·주택 등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건설에 27.2%, 항공·관광·에너지 등의 산업부문 지원에 18.9%, 취약계층 및 고용 지원에 11.2%, 병원 및 방역 시설 확충에 8.1% 등이 지원되었음.

[그림 3] 우즈베키스탄의 위기대응자금 항목별 지출 비중



자료: <https://www.gazeta.uz/ru/2020/11/26/anti-crisis-fund/>

- (2021년 지원정책) 2021년에는 정부 예산을 통해 연말까지 관광업, 운송업, 식당 등 피해업종의 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 유예, 낮은 이자율의 대출, 은행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지급 유예 등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
- 자영업자들에게 5억 9,700만 달러, 농업 부문에 1억 달러 등의 자금이 지원되고, 정부조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금의 30%(최대 10억 숨(9만 9,5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경제

- OECD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OECD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몽골, 아프가니스탄의 코로나19 정부 대응정책을 봉쇄조치, 거시경제, 보건, 세제, 디지털화 등의 항목별로 평가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표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평가

	Overall	Containment			Macroeconomic	Fiscal and other measures (for firms)		
	Policy response	Containment measures	Health support	Income support	Incl. prudential regulations	Financial	Taxation	Digitalisation
<b>KZ</b>	Highly responsiv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MG</b>	Highly responsive	Yes	Yes	Yes	Yes	Yes	Limited	Yes
<b>UZB</b>	Highly responsiv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AFG</b>	Constrained response	Yes	Yes	Limited	Yes	Limited	Limited	No
<b>KG</b>	Constrained response	Yes	Yes	Limited	Yes	Yes	Limited	Yes
<b>TAJ</b>	Limited response	Limited	Limited	Limited	No	No	No	No
<b>TURK</b>	Limited response	Limited	No	No	No	No	No	No

자료: OECD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292	1,476	-3,573	-3,359	-2,100
경상수지/GDP	0.4	2.5	-7.1	-5.8	-3.6
상 품 수 지	-2,392	-2,216	-6,867	-7,291	-4,100
상 품 수 출	8,645	10,162	11,386	13,899	11,000
상 품 수 입	11,037	12,377	18,253	21,190	15,100
외 환 보 유 액	13,815	13,664	12,071	12,475	14,304
총 외 채	15,801	15,580	16,952	23,982	29,174
총외채잔액/GDP	19.4	26.8	33.7	41.6	50.6
D.S.R.	10.6	12.6	12.7	13.4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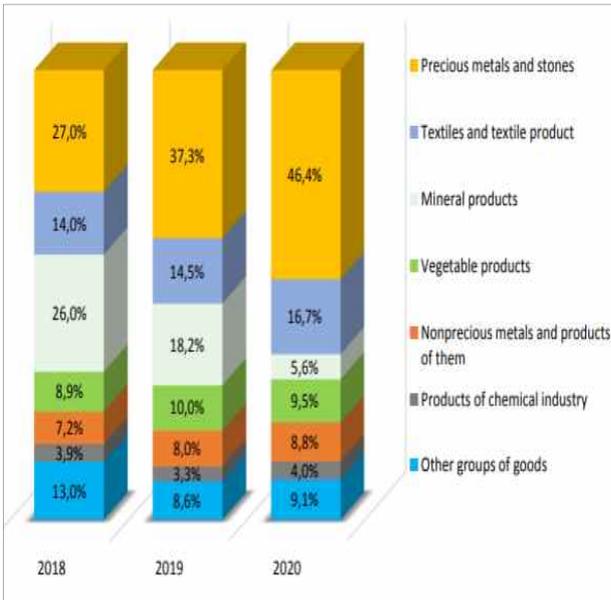
자료: IMF, EIU

###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2018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8년 이후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규모 감소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전년대비 하락함(19년 -5.8%⇒20년 -3.6%).
- 2018년 이후 투자와 소비 증가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20년에는 수출입 규모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입제한 정책에 따른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상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2020년 수출에서는 금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대 러시아 가스 수출 중단과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출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음. 금 수출액의 증대는 정부의 수출증대 정책과 함께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2018년 29억 달러, 2019년 49억 달러, 2020년 58억 달러)하고 수출 비중도 2020년 전체 수출의 44%로 전년도(35%)와 비교하여 상승하였음.
- 2021년에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13.9%의 교역규모 증대(수출 9%, 수입 17% 증가)가 전망됨. 그러나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운송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에 따라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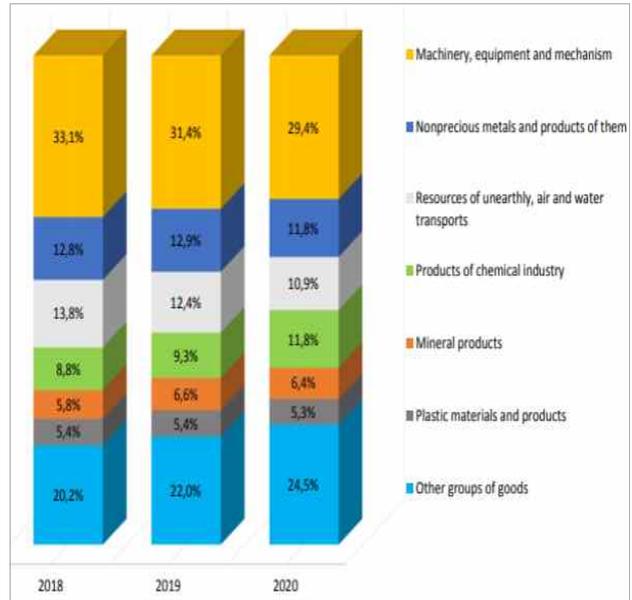
## 대외거래

[그림 4] 주요 수출품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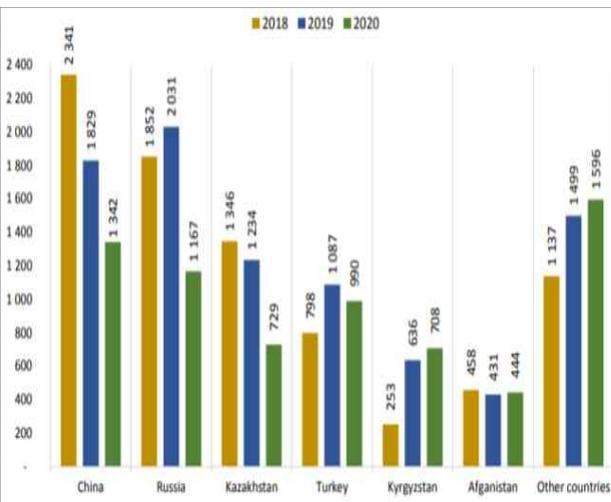
[그림 5] 주요 수입품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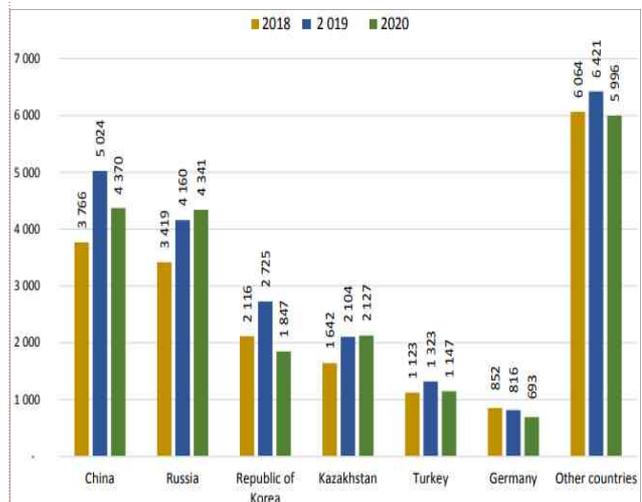
- \* 주요 수출품은 귀금속(46.4%), 섬유 및 섬유제품(16.7%), 식품(9.5%)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설비(29.4%), 금속 및 금속 제품(11.8%), 화학제품(11.8%) 등임.
- \* 주요 교역국은 중국(17.1%), 러시아(15.5%), 카자흐스탄(8.3%), 한국(5.9%) 순으로 수출에서는 중국, 러시아, 터키, 수입에서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함.

[그림 6] 주요 수출국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7] 주요 수입국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외채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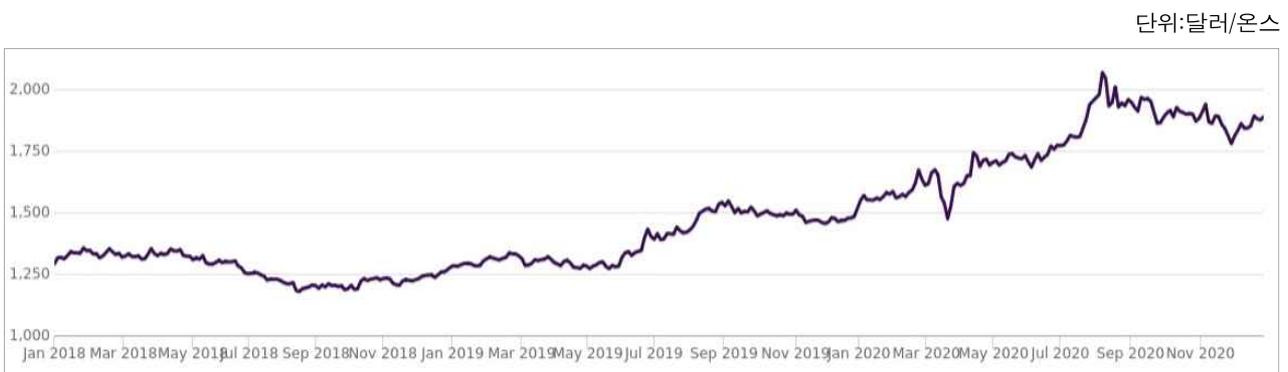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채 관련 지표 악화

- 우즈베키스탄의 외채지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 증대와 코로나19 대응목적의 자금 차입으로 인해 대외부채가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총외채규모는 2019년의 15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1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020년 말 기준 50.6%로 2018년의 33.7%, 2019년의 41.6%에서 상승하였음. 주요 채권자는 ADB(50억 달러), 중국 수출입은행 및 개발은행(40억 달러), 세계은행(37억 달러), 일본 JICA(24억 달러) 등임.
- 또한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 2019년의 13.4%에서 2020년에는 23.9%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공적채무도 GDP의 40.4%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19년 30.8% ⇒ '20년 40.4%).

### 외환보유액 및 금 보유액의 증가와 국제 금 가격 상승으로 대외자산규모 증가

- 외환보유액과 금 보유액의 증가에 따라 전체 대외자산 규모는 2020년 1월 291.7억 달러에서 2020년 12월 328.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외환자금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2020년 1월의 124.7억 달러에서 2020년 12월 14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또한 금 보유액은 국제 금 가격의 상승 추세에 따라 2020년 1월의 162.2억 달러에서 2020년 12월에는 184.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나보이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Myrntay 금광은 2019년에 세계 2위(66톤 채굴), 2020년에는 세계 1위(57톤 채굴)의 금 채굴량을 기록하였음.

[그림 8] 국제 금 시세(2018년 1월 ~ 2020년 12월)



[표 4] 우즈베키스탄 2020년 대외자산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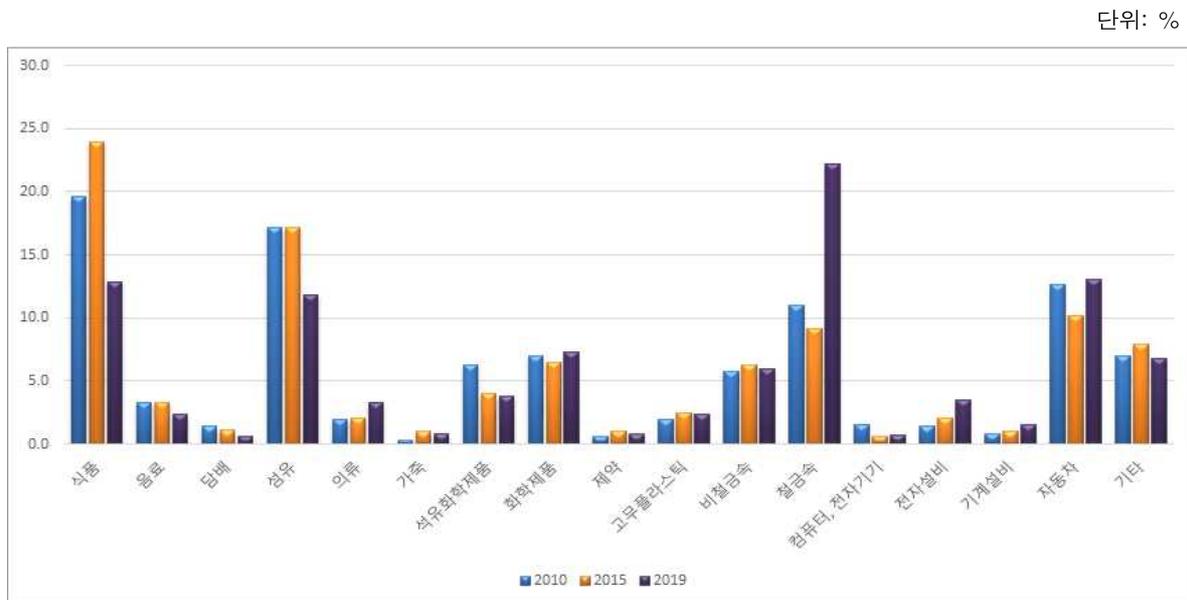
구분	2020.1.1	2020.4.1	2020.7.1	2020.10.1	2020.11.1	2020.12.1
대외자산	29,172.1	30,260.3	32,331.7	33,460.2	33,355.8	32,892.8
외환보유액	12,474.9	12,447.5	12,484.5	14,487.6	13,941.5	14,058.5
IMF 포지션	0.01	0.01	0.01	0.01	0.01	0.01
SDR	368.0	363.2	364.9	372.8	373.8	378.7
금보유액 (금 보유규모, 백만 온스)	16,329.2 (10.8)	17,449.6 (10.9)	19,482.3 (11.0)	18,599.8 (9.9)	19,040.5 (10.2)	18,455.6 (10.4)

## 구조적취약성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미진하며 일부 부문에 편중

-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GDP의 25.5%), 제조업(33.2%)과 서비스업(32.2%)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고용에서도 농업 부문이 23.3%로 높으며 제조업 29.9%, 서비스업 46.8%를 점유하고 있음.
- 식료품, 섬유, 자동차 등이 우즈베키스탄 제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금속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철금속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계, 화학 등 다른 제조업 분야의 생산 비중은 여전히 낮아 전반적으로 산업다변화가 부진한 상황임.
- 20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부문별 비중은 1차금속 26.0%, 식품, 13.9%, 섬유 11.9%, 자동차 11.1% 등 4개 부문이 62.9%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9] 제조업 생산 비중



자료: <https://stat.uz>

## 구조적취약성

### 높은 실업률과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국내 고용창출 부진에 따라 10% 전후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말 9%에서 2020년 말 10.5%로 상승하였음.
- 국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다수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있음.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은 60.3억 달러로 GDP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경제 및 외환보유액이 해외송금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의 여파에도 2020년 해외송금액은 전년대비 소폭(1,700만 달러) 증가하였음. 월별로는 러시아에서 경제봉쇄조치가 단행된 3~4월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된 5월부터 송금액이 다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송금액의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 72.1%, 카자흐스탄 6.4%, 미국 5.7%, 한국 4.3%, 터키 3.3%, 이스라엘 2.2%를 기록하였음. 2019년과 비교하여 터키, 카자흐스탄,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의 송금액이 증가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은 감소하였음.
- 해외 취업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1월 기준 167.8만 명으로 2020년 초의 246만 명에 비해 1년 동안 1/3이 줄어들었으며, 이 가운데 71%에 달하는 119.3만 명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분야는 건설(49%) 부문이 가장 많으며, 이어 제조업 11%, 유통 10.4%, 농업 7.8%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5] 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9	2020
전체	6,009.7	6,027.1
러시아	4636.8	4343.6
카자흐스탄	357.0	386.8
미국	167.4	344.8
한국	120.5	258.2
터키	152.6	196.4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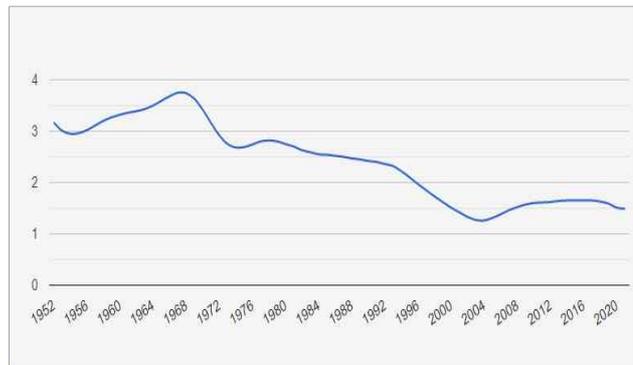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로 풍부한 인력 보유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 및 청년층 비중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21년 4월 기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4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0년의 3,050만 명과 비교해 640만 명이 증가한 것임. 2010년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6%로 세계 평균인 1.1%를 상회하고 있음. 2021년 초 기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26.5%,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8.8%,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를 기록하고 있음.<sup>2)</sup>
- 또한 2021년 기준 평균 연령이 26.3세로 젊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경제 성장 지속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의 근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10] 우즈베키스탄 경제활동 인구나 평균 연령 (2010~30년) [그림 11]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증가율(1952~2020년)  
단위: %



자료: UN, Fitch Solutions



자료: <https://countrymeters.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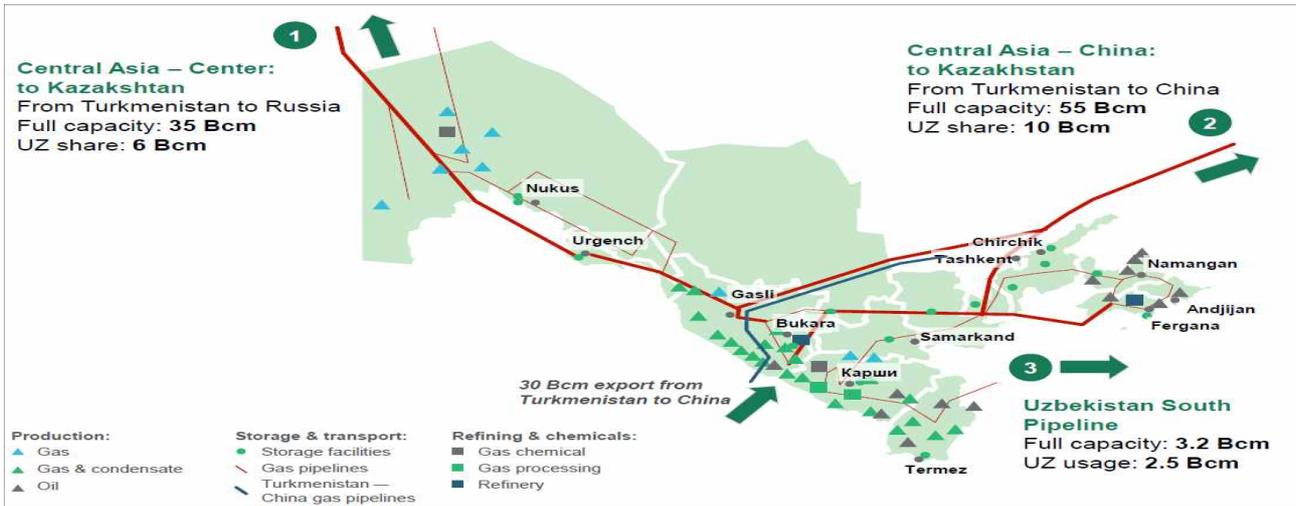
###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BP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천연가스 1.2조 m<sup>3</sup>,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생산 및 가공, 수출이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BP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4%에 이르는 563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이 가운데 132억 m<sup>3</sup>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하였음. 천연가스는 2019년의 경우 러시아로 62억 m<sup>3</sup>, 중국으로 49억 m<sup>3</sup>, 카자흐스탄으로 18억 m<sup>3</sup> 등이 수출되었음.
- 대러시아 가스관과 함께 2012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망이 구축되었으며, 이 가스관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가스 수출노선 역할을 하고 있음.

<sup>2)</sup> [https://countrymeters.info/ru/Uzbekistan#population\\_2020](https://countrymeters.info/ru/Uzbekistan#population_2020)

## 성장잠재력

[그림 12]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가스관



자료: Uzbekistan's energy sector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ctober, 2018.

### 풍부한 면화 생산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 발전 유망

-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은 2019년 기준 GDP의 4%, 제조업 생산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8위의 면화 수출국임. 2018년 기준 700여 개의 섬유·의류 관련 기업에 15만 명이 고용되어 있음.
- 섬유 수출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17.3%(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 터키 등이 주요 수출대상국임. 품목별로는 의류 및 카페트, 여성용 양말 등이 48%, 면사가 45%, 원단이 7%를 점유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20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3)</sup>
- 또한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2020~24년 섬유산업 발전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섬유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섬유 부문의 생산량을 4.6배 증대시키고 2025년에는 섬유수출액 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섬유 부문의 수출규모는 2011년 6억 6,000만 달러, 2016년 11억 달러, 2020년 19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음.

3)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전체 섬유산업에서 의류 제품의 생산 비중은 2013년의 12%에서 24%로 증가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정책성과

### ICT 산업 부문의 발전 성과

-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산업은 최근 전자정부와 국민의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ICT 부문의 GDP 비중은 2.2%, 서비스 생산에서의 비중은 6.5%로 평가되고 있음.
- 휴대폰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 수는 2012년 2,027만 명에서 2019년에는 3,3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 100명당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의 68.8명에서 2019년에는 101.2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국민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비율도 2012년의 23.6%에서 2019년에는 52.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전자정부 추진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UN의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E-Government Survey 국가별 순위에서 2003년의 174위, 2008년의 109위에서 2020년에는 87위로 현저히 상승하였음.
-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부문 발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와 협력하여 2019년 7월 타슈켄트에 IT 파크를 설립하였음.
- IT 파크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I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타슈켄트 IT 파크에 3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4천여 명의 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 굴리스탄, 카라칼팍스탄 등 6개 지역에 IT 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요 산업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의 원자재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10월 "2030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과와 '녹색경제 2030' 정책 추진

-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ADB,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나보이, 사마르칸드, 지작 등의 주요 도시들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1차 사업으로 나보이 지역에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사마르칸드와 지작에 건설이 추진될 계획임. 3차 사업으로는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에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표 6]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계획

단 계	지 역	주요 내용
1차	나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추진</li> <li>○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2019년 10월 공사를 수주하였고,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 예정</li> </ul>
2차	사마르칸드/ 지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400MW 규모(사마르칸드 200MW, 지작 200MW)의 발전소 건설 추진</li> <li>○ PPP 프로젝트(BOO 방식, 운영기간 25년)로 추진되며, 2021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li> </ul>
3차	부하라/나망간 /호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MW 규모(부하라 250MW, 나망간 150MW, 호레즘 100MW) 발전소 건설 추진</li> <li>○ PPP 프로젝트(BOO 방식, 운영기간 25년)로 추진 계획</li> </ul>

- 또한 최근에는 풍력발전소 건설도 추진되어, UAE 기업이 추진하는 나보이 풍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계획되고 있음.
- 2020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와 MASDAR Clean Energy사 간에 2024년 나보이 지역에 5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앞서 2020년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 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나보이와 부하라에 1,0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2개를 건설하는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였음.<sup>4)</sup>
- 신재생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2019~20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실시됨.
-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였고 2018년 의회에서 이를 비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 녹색경제 전략을 수립, 이를 추진하고 있음.

4) <https://www.acwapower.com>

## 정치안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올해 10월의 대선에서 재선 유력

-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에서 약 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으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 정보국의 역할이 제한되며 체제의 안정성이 견고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 발전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다당제 확립, 공직자 부패 척결 등 정치개혁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2017~21년 국가발전전략의 5대 중점 목표 내용에는 공공행정 및 국가체제 개선, 법치주의 강화 등 정치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개혁을 통해 다당제 확립, 부패 척결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의 해임 등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음.
- 2020년 초 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선거 운동시에 의원, 공무원, 종교지도자, 안보기관 직원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치중립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개혁을 통해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전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중의 하나로 선출되어, 3년 임기 동안 유엔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음.
- 한편, 국제인권위원회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승인 등을 비롯한 보다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권 진전으로는 정부의 면화 강제노동 관행 폐지 선언과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의 석방 등이 있으나, 개인이나 조직의 공개적인 반정부 활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사회안정

### 사회 전반의 부패해소 및 언론자유 증진 등의 성과는 미흡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언론자유에서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보고서(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2020년 세계 180개국 중 146위로 전년도(153위)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5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 높은 청년실업률은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

- 국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실업률이 높으며(10.5%), 특히 청년(18~30세) 실업률은 17%로 매우 높은 비중을 기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30세 미만의 청년의 수는 1,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5%에 달하며 이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1.5배를 상회하는 17%에 이르러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와의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용 지원, 청년 기업가 지원, 청년 대상 직업교육 등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청년실업 해결과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과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의 30%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ESG 신용영향점수는 '부정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

- Moody's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전체적으로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에너지 산업 위주에서 섬유, 농업, 금 등을 포함한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수자원 부족 및 오염, 토양의 염분농도 증가 등이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 및 섬유 부문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교육, 주택, 보건 및 위생 등의 사회적 인프라 미흡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부의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효율적인 정부 행정, 부정부패, 법적 및 제도적 취약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외교·경제에서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협력 유지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저버 회원 가입(2020.12)을 통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전임 카리모프 행정부와 달리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는 동시에 러시아 주도의 EAEU 가입을 추진해 왔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3년 후 정회원 가입을 통해 에너지, 자동차, 섬유, 농업 등 중점 산업 부문에서 EA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섬유, 자동차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고 전체 해외노동자 송금의 80%를 점유하는 러시아로의 이주노동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고 있음.
-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020년 17.1%(2019년 1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8.9%, 수입의 20.6%(2019년 수출의 14.1%, 수입의 21.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천연가스 수출의 37%가 중앙아시아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 연결)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어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바 있음.
- 이외에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우즈베키스탄에 4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경제특구 진출 등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국제관계

### WTO 가입 추진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WTO 설립이 추진되던 1994년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가입협상을 재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까지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뒤 협상을 중단하였고, 2018년 가입 협상을 재개하여 2020년 15년 만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한국, EU, 미국 등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 무역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IP) 등 WTO 가입을 위한 주요 협상 부문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2020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세관절차 단순화와 조화에 관한 교토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가입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WTO 가입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 2021년 1월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앙아시아 투자 파트너십 이니셔티브(Central Asia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함.
-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개발 금융공사(DFC)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의 발전 등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 2020년 12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억 2,940만 달러, 중장기 34억 2,92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00만 달러(단기 40만 달러, 중장기 60만 달러)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1)	5등급(2020.2)
Moody's	B1 (2021.2)	B1 (2020.3)
Fitch	BB- (2021.4)	BB- (2020.9)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3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후 현재까지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무디스는 2021년 2월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B1으로 평가하고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도 2021년 4월 기준 BB- 등급을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는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정책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으로 1995년(-0.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6%)을 기록했음. 그러나 이는 세계 평균성장률(-4.4%)이나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3.5%)에 비해 높으며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의 외채지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 증대와 코로나19 대응목적의 자금 차입에 따라 대외부채가 증가하였음. 반면 외환보유액과 금 보유액의 증가에 따라 전체 대외자산 규모는 2020년 1월 291.7억 달러에서 2020년 12월 328.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제조업의 부진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디지털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섬유 및 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통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대선에서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 척결과 정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기존과 같은 D1으로 유지하고자 함.